

지역사회 교육 요구 부응한다

도교육청, 교육협력 추진 계획 마련... 지자체와 협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력을 보다 강화, 지역사회의 교육관련 요구를 충족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2019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지자체와의 교육협력 강화를 통해 교육재정 사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발굴·운영해 상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먼저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개정을 유도, 교육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현재 교육감과 도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전북도 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장과 시장·군수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지역교육행정협의회'가 운영중인 가운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형성,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발굴·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육관련 교육지원 조례 제·개

정을 유도한다. 도내 14개 시·군 중 4개 시군에서는 교육지원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앞으로 이들 지역 의회와 지역인사 설득을 통해 조례를 마련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지자체와 상생협력관계 조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교육청·지자체 협력 공감 워크숍을 오는 7~9월중 개최하고, 5월중에는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협력 컨설팅을 지원한다. 연말에는 교육협력에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 교육협력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학

부모·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사업 발굴, 찾아가는 지역 맞춤형 교육사업 설명회, 교육협력 홍보활동 등이 주요 내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급식,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환경개선, 학력신장, 학생복지증진 등 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도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는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 총액은 총 8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9%(141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은성 기자

김승환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2개월 연속 1위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전국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2개월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2019년 2월 시도교육감 지지도'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지지율(잘한다 '긍정평가')은 53.7%로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지지율 41.3%를 10% 이상 웃도는 수치이자, 과반이 넘는 전북도민들이 김 교육감의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특히 이같은 지지율은 김 교육감이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얻은 득표율 40.1%에 비해 13.6%p나 오른



것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혁신교육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뒤이어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50.7%로 2위,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45.4%로 전북보다 한 계단 상승하며 톱3에 진입했다. 또 경북 임종식 교육감(43.8%) 4위, 부산 김석준 교육감(43.6%) 5위, 충남 김지철 교육감(43.0%)이 6위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반면 경남 박종훈 교육감(38.2%) 13위, 대구 강은희 교육감(37.3%) 14위, 강원 민병희 교육감(35.3%) 15위, 울산 노옥희 교육감(34.6%) 16위, 세종 최교진 교육감(33.1%) 17위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광역자치단체별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0.8%p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대학교병원이 지난 8일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읽기곤란 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교육청 - 전북대병원, 난독 학생 지원 상호교류 협약식 가져

전북도교육청이 읽기곤란 학생 중 난독증인 학생들의 치료와 중재교육을 연계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과 전북대학교병원(원장 조남천)이 지난 8일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읽기곤란(난독) 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대학교병원(찾아가는 음성언어치료서비스 THE DREAM)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읽기곤란(난독)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및 치료 서비스 인력 지원, 방문 서비스를 원칙으로 한 전문가 파견을 통해 체계적인 평가와 진단,

언어발달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서비스, 기타 음성언어발달 교육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소속 학교에 난독 학생 진단 및 치료·중재교육 안내, 학교 및 학부모 홍보와 안내, 난독 학생 재학 학교의 시설 및 장소 제공,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을 지원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단 한 명의 아이

라도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난독 학생들을 더욱 따뜻하고 섬세하게 보살피, 배움과 학교생활이 즐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남천 병원장은 “체계적인 음성언어치료서비스를 통해 난독증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언어발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전라북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난독증을 포함한 읽기곤란 학생 지원에 더욱 속도를 낼것임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군산대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공동 교육 위한 협약 체결

군산대 귀어귀촌센터(센터장 김동진)는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소장 전병권)와 최근 어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어업창업기술 공동교육 실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식에는 전병권 수산기술연구소장, 김동진 군산대귀어귀촌센터장, 김정열 어업기술센터장,

황갑승 수산질병센터장, 이창원 민물고기시업장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어업창업 예정자에게 어업창업 기술교육(현장실습)과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어업창업 기술교육과 관련된 정보의 교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군산=김정호 기자

3월 크고작은 체육행사 '풍성'

전국·도내 대회 전북서 잇달아 열려

3월 전북지역 곳곳에서 크고작은 체육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8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3월 한달간 사회인 야구대회와 검도대회 등 전국 또는 도내 규모의 체육대회가 진행된다.

먼저 9일부터 이틀간 부안 일원에서는 '제4회 새만금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가 성황리 열렸고, 16일에는 제24회 도지사배 검도대회가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다.

제40회 회장이 전국정구대회는 18일부터 일주일간 순창다목적 실내구장에서 열리고 제27회 도지사배 배드민턴대회는 22일부터 사흘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진행된다.

또 27일부터는 군산월명체육관에서 '제37회 한국대학탁구연맹전 겸 이탈리아 U-대회 최종선발전

이 펼쳐진다.

이밖에도 제3회 단풍미인배 전국검도대회(30~31일)와 제20회 부안군수배 궁도대회(30일), 제12회 도지사기 족구대회(31일), 제4회 도지사배 등산대회(31일)가 각각 정읍과 부안, 무주, 남원 일원에서 열린다.

체육대회는 아니지만 오는 5월 전북 일원에서 열리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테니스와 농구, 배구, 자전거, 복싱, 레슬링, 사격 등 각 종목에서도 선발전회를 연다.

전북체육회 최영원 사무처장은 “크고작은 체육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더 많은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